

한전, 미래 전력기술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

내일까지 CES 2026서 '한전관' 운영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신기술 선봬
전통 거북선 차용 전시관 구성 눈길

한국전력이 CES 2026에서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시관으로 세계 관람객을 맞이한다.

한전은 7일 "전날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North Hall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CES에서 한전은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결합한 전시 콘텐츠로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력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 ▲I DPP(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SEDA(송변전 예방진단 솔루션) ▲SFL(지중케이블 고장점 탐지 기술) ▲A DMS(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 ▲DC 배전 ▲AMI(스마트 계량기) ▲AI 인가구 안부살핌 ▲



한국전력이 오는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North Hall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 사진은 한전관 전경.

〈한국전력 제공〉

K-AMS(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내용은 관람객이 관심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몰입형 LED 실감영상 LED 실감영상: 4

34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태어난 한전의 미래 전기 거북선 항해 체험 ▲융합형 배너 영상 배너 영상: 전력기술을 한국적인 요소와 접목해 인포 그래픽 스틸컷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요약 영상 키오스크형 기술요약 영상: 자체 개발부터 현장적용, 스마트 운영까지 전력기술을 쇼츠 형태로 소개 ▲확장형 QR 코드기반 기술상세 영상 QR 코드 기반 기술상

세 영상: 키오스크에서 쇼츠 형태로 소개하는 전력기술을 보다 심도 있게 추가 설명의 4단계로 구성했다.

또한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의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스토리로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한전은 전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과거 전통 거북선을 차용해 전시관을 구성했다. 거북선이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상징이 됐듯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한전이 개발한 에너지 신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미래 전기 거북선'으로 재현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역사·문화유산이 지난 혁신의 가치와 서사를 미래 전력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CES 2026 참가를 통해 글로벌 전력 유트리티 최초로 혁신상 5관왕 등 세계 무대에 우리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시간이 됐다"며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여수산단 구조조정 금융지원 안갯속

추가 감축대상 결정 늦어져

'산은 참여→기업 자율' 선회

여수 석유화학단지 구조조정 관련 채권단의 금융지원 논의 착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추가 감축 대상을 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전NCC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채권단 자율협의회는 아직 소집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연초부터 석유화학 산업 금융지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에 이어 새해에는 여전NCC 등 여수 산단 기업이 '2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석유화학기업 16개사의 사업재편안 제출이 마무리된 점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전NCC 3공장 외에 추가 감축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길어지며 금융지원 논의 착수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산단은 여전NCC 3공장 폐쇄에 더해 롯데케미칼과 여전NCC의 중복설비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사업재편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전NCC 1·2공장과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중에 하나를 더 닫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답을 내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자 산업은행이 추가 감축대상 결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칫 기업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산은은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어느 시설을 얼마만큼 감축할지 큰 청사진이 있어야 채권단도 금융지원 관련 실사를 할 수 있다"면서 "그 준비단계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렇게 올라도 되나…전문가들 “증시 과열 아니다”

1월 증 코스피 5,000 전망도

"이익 상향에 주가 못 따라가"

새해 들어 코스피가 4일 연속으로 매일 100포인트씩 상승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급등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증시 과열'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불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전망치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리스마스 이후 코스피가 거의 500포인트 올랐다"면서 "이 기세면 1월에도 코스피 5,000도 바라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과열 징후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허 연구원은 짚었다.

보통 주가가 오를 때는 기업이익보다는 벤류에이션(평가가치)이 상향되는데, 현재는 그와 반대로 기파르게 치솟는 기업이익 전망치를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허 연구원은 "제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기업이익 추정치 상향 속도"라면서 "제가 연간 전망을 하던 작년 10월 말 2026년 코스피와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는 378조원, 122조원이었는데, 현재 추정치는 각각 454조원과 188조원으로 2개월 만에 20%와 54%씩 상향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영업이익 450조원대를 가정하면 제 계산으로 적정 코스피는 5,200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도, 12개월 예상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 또는 P/E)은 10.4배에 불과해 작년 10월 말 11.99배보다 낮다"고 허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조달청, 새해 5·18묘지 참배…민주영령 희생정신 기려

광주지방조달청은 7일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진행하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의 뜻을 마음에 새겼다.



〈인태호 기자〉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화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강릉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www.kjdaily.com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 062)650-2000

▶ 구독문의: 062)650-2022